

네트워크 사회와 시리아 난민의 이동*

김성진 ■ 덕성여자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해 소셜 미디어에 기반한 난민 네트워크 발전이 난민 이동과 난민 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볼 때, 과학기술 특히 휴대전화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활용의 증가는 난민과 난민을 둘러싼 출발/도착지와 경로지내 다양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에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난민들은 소셜 미디어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통해 국경 통제를 우회하고, 법적 회색지대를 이용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에 기반한 연결은 도착지와 이동경로에서 행위자들 간의 무작위 연결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난민 네트워크내 거리를 현저하게 단축하고 있다. 이러한 연결은 밀입국 알선조직과의 연결에서도 과거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선택과 평가가 용이한 관계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난민 네트워크는 거짓 정보나 잘못된 정보로 위험성을 높이기도 한다. 이는 소셜 미디어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하며 확증편향은 이러한 거짓 정보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난민을 둘러싼 행위자와 이들의 상호작용의 변화는 '새로운 난민' 혹은 '새로운 환경'에 있는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국제협력의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주제어: 시리아 난민, 지중해 난민, 네트워크 이론,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유럽 난민 위기, 난민정책

I. 서 론

이 글의 목적은 소셜 미디어에 기반한 난민 네트워크의 발전이 유럽 난민 위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1039526). 발간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세 분 심사자께 감사드립니다.

**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전공 교수 (E-mail: skimgla@duksung.ac.kr)

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촉발된 유럽내 대규모 난민 유입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회원국들 간 난민정책 조율에 어려움을 야기하면서 '난민 위기'를 촉발하였다. 혼합이주(mixed migration) 형태로 진행된 대규모 난민 유입은 난민 보호의 어려움과 함께, 난민 보호조치가 '경제 이주의 뒷문'(back door)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난민 유입에 반대하는 극 우정당에 대한 지지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시리아 내전이후 진행되고 있는 혼합이주(mixed migration) 형태의 대규모 난민 유입은 급속한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이통신기술 및 소셜 미디어의 발전으로 난민관련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크게 변화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난민 사태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초국가적 이동에서 연구되어온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사회적 네트워크와는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난민정책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

난민 위기의 촉발에 따라 난민 연구도 증가되고 있다. 유럽 난민 위기에 대한 연구는 대규모 유입과 이에 따른 난민 보호 실패, 그리고 제도적 보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유럽 난민 위기에 대한 연구는 난민 유입/보호 현황과 실태에 대한 분석(지글러 2020; 박선희 2017), 독일(신소희 2020; Ette 2017; 고상두·하명신 2011), 영국(신지원 2019; 김성진 2016; 윤성원 2016), 프랑스(심성은 2019), 스웨덴 등 주요 난민접수국과 경로지의 난민정책(김성진 2020a; Ostrand 2015), EU와 회원국 간의 난민 정책 조율 노력과 한계(이형석 2019; 김대순 2018; 안병익 2016; 박병철·석인선 2016),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분석(김현주 2015; 이기주 2015), 그리고 대규모 난민 유입에 따른 난민보호의 어려움(송영훈 2018), 난민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혐오 증가(국민호 2019; d'Haenens et al. 2019), 테러 위협에 대한 경계(Crone et al. 2017; 박단 2016; Schmid 2016), 우파정당의 성장(김중범 2018; 이용일 2018), 그리고 유럽통합에 대한 영향(황기식·김현정 2017; 최진우 2016)과 같은 정치·안보적 역기능을 분석하고 있다(이신화 2017). 기존 연구는 대부분 난민을 박해를 피해 비호를 요청하는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다소 수동적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며, 이들이 특히 2차 이동과정에서 이동경로나 도착지 선정 등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어 대규모 발생이나 이동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Conte & Migali 2019).

이동 주체로서 난민은 단순히 '보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찾아 이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난민의 '2차 이동'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난민 이동과정에서 시리아 내전으로 촉발된 난민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¹⁾ 거의 모든 난민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이동하고 있다. SNS 기반 네트워크는 난민들이 도착지/경로지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게 해주며, 난민들의 출국 여부와 시기, 도착지, 이동 경로 및 수단의 선택과 같은 일련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 SNS를 통한 정보 공유는 난민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이동'을 의미하지만, EU 회원국들에게는 상호 정책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경 통제와 난민 보호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 및 소셜 미디어의 발전은 난민 증가는 물론, 난민 이동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확대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난민 이동에 개입하는 인신매매조직이나 밀입국 알선자들의 행동 양식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난민정책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시리아 내전 이후 나타나는 난민 이동의 특징을 네트워크 이론에 기초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2장에서는 네트워크 이론을 간략히 살펴보고, 3장에서 북부 아프리카, 터키, 그리고 유럽으로의 이동을 고려하는 난민들의 이동을 살펴봄으로써 거시적인 차원에서 난민 이동의 흐름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4장에서 난민 이동에 대한 난민 네트워크의 영향을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결론에서 이러한 변화가 난민 보호와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II. 네트워크 이론과 난민 이동

1. 네트워크와 사회적 행동

시리아 난민의 유럽내 대규모 유입은 접수부터 심사 및 판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심각한 부담을 야기하고 있으며, 지중해 통과 및 도착지에서 야기되는 인도적 참상, 그리고 혼합이주 양상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과 사회적 우려의 확산 등으로 복합적인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대규모 난민의 이동은 내전처럼 폭력적

1) 다만 이러한 이동에서도 여전히 배출요인이 인입요인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Wittenberg 2017, 2).

상황이 급격하고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될 경우 예상 가능한 상황이며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혼합이주 역시 시리아 난민 이전부터 적절한 대응이 촉구되었던 이미 인지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김성진 2020a). 이러한 기존의 문제가 시리아 난민을 계기로 왜 새롭게 문제시되고 있는가? 네트워크 이론은 이러한 현상이 표면적으로 이전의 대규모 난민이나 혼합이주 상황과 유사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네트워크 이론은 행위자와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구조주의 전통 및 그래프 이론(graph theory)과 연결되고 있다. 네트워크 이론의 분석단위는 행위자이지만 이 행위자는 집합적인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행위자 간 관계에 대한 분석은 집단 간 관계 분석으로 이어진다. 네트워크 이론에서 핵심적인 분석내용은 행위자 혹은 행위자로서의 집단 간 관계와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행위자가 상호의존적이고, 행위자의 행동은 구조적 관계의 영향을 받으며, 네트워크상 관계는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되는 과정에서 일정안정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분석 가능한 실체가 있음을 전제한다(고길곤·김지운 2013, 41-42). 여기에서 '관계'는 협력적·적대적 관계, 일방적·양방향적 관계와 같이 '관계'의 특징과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속에서 가지는 위치(position)가 '관계'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네트워크 이론에서 행위자에 대한 구조의 영향은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기회나 제약이 행위자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네트워크 이론에서 유의미한 행위자는 네트워크에 연결됨으로써 다른 행위자들과 관계를 설정하고, 이렇게 설정된 관계가 행위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전제한다.

네트워크 이론은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어왔다. 특히 그래프 이론은 점과 연결선을 집합으로 파악해 네트워크의 유형과 연결의 방식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수학 영역에서는 행위자 간의 무작위적 연결을 전제로 무작위 그래프 이론으로 발전하였으며, 연결의 중심성과 분포, 네트워크의 평균거리, 그리고 모든 점들이 연결될 수 있는 조건과 같은 수학적으로 표현되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규명해왔다(고길곤·김지운 2013, 45-46). 이러한 무작위 네트워크는 많은 점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때 무작위의 두 점이 연결되는 평균거리가 매우 짧다는 것, 즉 '좁은 세상'임을 보여주고 있다.²⁾

2) 물론 무작위 그래프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사회학적 접근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네트워크 구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길곤·김지운 2013, 46).

무엇보다 네트워크 이론은 목적적 행동의 효율성과 관련해 네트워크의 구조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개방형/폐쇄형 네트워크와 같이 상이한 네트워크 구조는 특정한 목적 행동에 대한 효율성이 다를 수 있다. 네트워크의 효율성 논의는 어떤 네트워크가 효율적인가와 함께 행위자의 구조적 위치가 중요성을 가지는가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³⁾ 특히 1990년대 이후의 네트워크 구조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들은 네트워크상에서 강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구조적 중심성보다는 네트워크내 소집단들을 연결해주는 ‘약한 연결선’이 네트워크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약한 연결선’이 단절될 경우 네트워크내 소집단이 단절되어 네트워크 거리가 증가되는 결과를 낳게 되며, 반대로 네트워크내 ‘약한 연결선’을 추가할 경우 소집단 간 연결로 네트워크내 행위자들의 평균거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길곤·김지운 2013, 45-46; 고길곤 2019, 602-603). ‘좁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연결은 인위적 설계라기보다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행위자들의 개별적 선택의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복잡한 연결망은 작은 규모일 때 나타난 구조적 특징이 규모가 커지더라도 유지되는 ‘자기유사성 구조(fractal)’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부분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다른 유사구조가 이를 대체함으로써 ‘연결망 실패’를 보완하게 되며 전체 연결망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길곤 2019, 603).

네트워크 이론은 1980년대 이르러 과학과 기술을 사회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시도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을 통해 동식물은 물론, 물질, 기계, 텍스트 등 비인간적 사물을 행위자로 간주하고, 비인간적 행위자와 인간이 결합된 ‘이질적 네트워크’의 성격과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로 발전하였다. 칼롱(Michel Callon), 아크리히(Madeleine Akrich), 라투르(Bruno Latour), 로(John Law) 등에 의해 발전된 ANT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사이에 행위성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실제 세상이 인간들만의 연결이 아닌 인간과 비인간이 포함된 다양한 행위자가 결합된 ‘이질적 연결망’으로 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ANT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연결된 공간을 포착함으로써 사회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보르가티(Stephen P. Borgatti)와 동료들은 사회과학의 경우 네트워크 연구의 주안점은 네트워크의 결과(consequence)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축은 네트워크상 노드(node, 점 혹은 행위자)의 위치가 노드가 접하게 되는 기회나 제약에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해 노드의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Borgatti et al. 2009, 894).

(최병두 2017, 2). 특히 ANT는 과학과 기술이 인간-비인간의 결합속에서 어떻게 발전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보이며, 네트워크 내 행위자들의 동맹관계와 갈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ANT 모델의 생성, 발전, 소멸을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최병두 2017, 27-29).

2. 이주/난민과 네트워크 이론

행위자 간의 관계와 연결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는 이주문제에서도 그동안 적지 않게 논의되어왔다. 초국가적 이동에서 연결망에 대한 연구는 도착지내 언어, 문화, 민족공동체의 존재와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연결 등 개인이 특정 집단에 소속되면서 얻어지는 '사회적 연결'이 하나의 자산과 같이 활용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김혜선 2019; Côté et al. 2015; Garip 2008; 이은채 2004; Alberto et al. 2001). 이주와 연결망에 관한 관심은 ANT에 기초해 공간과 이동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음식, 결혼 등을 매개로 초국가적 이주를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로 이어지고 있다(최병두 2017; 장세용 2012).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난민 연구에도 부분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나, 네트워크 혹은 ANT에 기초해 난민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난민 이동과 같은 사회적 현상의 특징을 규명하려는 분석은 많지 않다. 이는 아마도 난민의 경우 이동 결정이나 동기보다는 난민 보호와 이를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고려에 연구 초점을 맞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관련 쟁점 분석에 네트워크 이론이나 ANT를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많은 것을 설명해줄 수 있다. 첫째, 네트워크 이론은 개인적 배경이나 사회적 자본보다 네트워크상의 위치가 행위자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포착하고 있다.⁴⁾ 내전이나 환경재난 상황은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개인적 배경보다 더 강력한 배출압력이 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이동, 특히 2차 이동은 이러한 1차적 배출압력과는 다를 수 있다. 네트워크상의 위치가 행위자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강조점은 상이한 개인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동에 참여하는 과정, 특히 동일한 경로를 이용하면서 나타나는 '혼합이주'(mixed migration) 발생을 설명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4) 1932년 뉴욕 허드슨 여학교(Hudson School for Girls)에서 2주간 14명의 여학생이 '탈주'한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모레노(Jacob Moreno)는 이들 여학생의 성격과 동기와 같은 개인 차원의 요인들보다는 허드슨 여학교내 사회적 네트워크 상의 학생들의 위치가 보다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였다(Borgatti et al. 2009, 892).

줄 수 있다.⁵⁾

둘째, 네트워크 이론은 행위자의 연결에 더해 무작위 연결선의 추가가 네트워크 전체의 '거리'를 좁힐 수 있으며, '좁은 세상'을 더 좁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좁은 세상'은 이동/통신수단의 발전이 시간거리 단축과 사람들의 물리적인 이동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상의 거리를 축소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성격에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부분의 '시리아 난민'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SNS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다는 점은 난민 네트워크의 구조와 성격을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ANT 관점에서 보면, 난민 이동에서 휴대전화의 개입, 즉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와의 연결에는 난민 이동과 관련된 다양한 배경의 행위자가 대규모로 참여함으로써 무수한 연결을 낳고 있다. 이러한 연결의 확대는 '인접한 행위자 간의 연결로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에서 '무작위로 멀리 떨어져 있는 몇 개의 선'만 연결되더라도 나타난다는 네트워크 거리의 단축, 즉 소집단 간의 원활한 연결이 이루어지는 '좁은 세상' 형성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학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주식 증계인 실험 등을 통해 실증적으로도 증명되었다(고길곤·김지윤 2019, 600-604).

셋째, 소셜 미디어의 활용과 난민 네트워크내 행위자들 간의 무작위 연결의 폭발적 증가는 네트워크의 성격과 네트워크내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임을 시사한다. 전통적 속성을 보여주었던 아프간 난민의 프랑스 유입 과정은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서 장거리 이동과 이동과정에서의 다양한 인권 침해가 보고되었다.⁶⁾ 그러나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연결되는 난민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내 소집단이나 행위자의 관계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도착지와 경유지에서 연결되는 많은 행위자들 가운데에는 인신매매조직

-
- 5) 혼합이주 현상을 설명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나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혼합이주 속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의 법적 지위나 목적은 다를 수 있으나 이들의 도착지가 유사할 경우 출발지를 떠나 도착지에 이르는 경로는 도착지에 가까워질수록 선택의 폭이 좁혀질 수 있다. 특히 이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협이나 통제, 그리고 이를 회피하려는 단기 목적은 정보공유와 함께 일종의 집단 지성을 형성하게 된다. 주어진 상황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선택의 폭이 제한되면 결과적으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제한된 수의 이동경로에 모이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곧 '혼합이주'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 6) UNHCR 파키스탄사무소는 갈레 난민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인터뷰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출발한 많은 난민들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의 이동하였으며, 인권 침해를 언급하였다(2017년 2월 진행된 UNHCR 보호담당관과의 인터뷰).

(human trafficker)이나 밀입국 알선자(smuggler)가 포함되어 있다. 소셜 미디어의 활용은 새로운 알선조직의 참여와 경쟁을 촉발하고 난민과 이들 간의 접촉을 용이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접근성 증가와 경쟁으로 인해 알선조직과 난민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양방향적 혹은 시장 관계와 같은 성격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⁷⁾

네트워크에 기초한 접근과 비인간적 행위자 개념의 도입은 난민의 이동행태와 국경관리상의 장애는 물론, ‘혼합이주’를 포함해 난민 이동을 둘러싼 많은 쟁점과 문제들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Ⅲ. 북아프리아/삐칸지역 난민 이동

1. 시리아 ‘인접’지역 난민 현황

소셜 미디어가 난민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난민의 선택적 이동과 ‘인구 압력’이 실재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1년 4월 시리아 내전으로 난민 이동이 촉발된 지 벌써 10년이 지나고 있다. 시리아 난민은 2021년 3월 15일 현재 국내 실향민 670만 명, 그리고 해외 체류 난민 660만 명에 달하고 있다.⁸⁾ 시리아 난민은 2011년 5월 이미 터키 등 해외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나, 2013년 2월 초까지만 해도 35만 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 규모는 2013년 9월에 1백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2017년까지 거의 매년 1백만 명씩 증가했다.⁹⁾

내전 초기인 2011년 시리아 난민은 레바논, 터키, 요르단 등 주로 인접국가로 이동하였다. 인접국내 시리아 난민 규모는 2012년 터키 약 25만 명, 요르단 약 24만 명, 레바논 약 13만 명, 이라크 약 6만 5천 명 수준이었으나, 2020년 터키

7) 여전히 이동정보와 수단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네트워크내 위계성에도 불구하고, 난민과 ‘브로커’ 간의 관계가 대안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이전과는 다른 관계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네트워크내 권력의 위계적, 수평적 성격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김석현(2012) 참조.

8) <https://www.unhcr.org/syria-emergency.html> (2021/04/10 검색).

9) 시리아 난민은 2013년 4월 이미 120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2013년 9월 중순 2백만 명, 2014년 9월 3백만 명, 2015년 8월 4백만 명, 2017년 4월 5백만 명으로 증가했다. “Trend of Registered Syrian Refugees.” in https://data.unhcr.org/en/situations/syria#_ga=2.213019155.682931321.1619536270-1860858930.1579760231 (2021/04/10 검색).

약 357만 명, 레바논 88만 명, 이라크 약 24만 5천 명, 이집트 13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라크를 포함해 EU 남부 접경지역내 시리아 난민 규모는 레바논에서의 부분적 감소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시리아 난민 이동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긴 하지만 점차 알제리와 모로코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표 1> 시리아 접경국가들과 북아프리카지역내 '시리아 난민'(단위: 1천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터키	0.2	249	586	1,558	2,504	2,824	3,424	3,622	3,576	3,575
레바논	0.5	127	852	1,148	1,063	1,006	992	944	911	884
요르단	2.8	239	585	623	628	649	653	676	655	658
이라크	1.7	64.8	214	235	245	231	247	253	246	245
이집트	0.1	12.8	132	138	118	116	127	133	129	130
리비아	0.0	3.8	16.8	18.7	18.7	19.5	22.1	23.7	17.4	18.8
알제리	0.0	0.2	1.1	4.1	6.2	5.3	5.8	7.5	7.8	6.4
모로코	0.0	0.8	0.9	0.6	2.6	3.2	3.0	3.5	3.7	4.1
튀니지	0.0	0.0	0.2	0.6	0.5	0.5	0.6	0.9	1.4	1.7

자료: UNHCR 난민통계자료(<https://www.unhcr.org/refugee-statistics/download/?url=7gk0Cp>)에 기초해 작성.

이러한 상황에서 시리아 인접국 내 난민들 가운데 비호희망자(asylum seekers)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리아 접경지역과 아프간 난민이 많이 이동했던 파키스탄, 이란, 그리고 아프리카 난민들이 도착하는 북아프리카지역은 시리아 난민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로부터 난민이 유입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UNHCR의 보호하에 있는 난민대비 비호희망자의 비율은 현저하게 낮으며, 이들 난민의 이동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아프간 난민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란의 경우 2020년 UNHCR 관할하의 난민이 약 98만 명에 달하는 데 비해 비호희망자 수는 33명에 불과하며, 파키스탄의 경우에도 약 140만 명이 UNHCR 관할하에 있으나 비호희망자는 9,700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향은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등지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며, 이들 국가내 시리아 난민의 경우 비호희망자는 아예 없거나 수십 명 수준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터키의 경우 2018년 UNHCR 관할하 시리아 난민은 약 362만 명

에 달하지만, 비호희망자는 111명에 불과하며 지난 10년간 300명 이상을 기록한 해가 없다.¹⁰⁾

다만 이러한 경향은 출신국과 접수국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리비아의 경우 2015년을 기점으로 비호희망자 수가 급증해 UNHCR 관할하 난민 대비 비호희망자 비율이 급격히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리비아에서 출발하는 해상난민에 대한 통제 강화와 리비아에 대한 통제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조치는 2017년 1월 이탈리아와 리비아 간의 이주문제에 관한 양해각서(Libya-Italy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Migration) 체결로 보다 강화되었다(Liguori 2017).

<표 2> UNHCR 관할 난민 대비 비호희망자 비율(%)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00
터키	75.6	8.9	8.6	6.7	8.4	8.6	8.9	8.5	9.2	9.2
레바논	19.2	1.4	0.3	0.6	1.1	1.4	1.5	1.7	1.3	1.3
요르단	1.1	1.0	0.7	2.9	3.8	5.2	6.3	7.3	7.4	7.2
이라크	11.9	5.0	2.4	3.1	2.7	4.4	4.7	5.0	4.7	4.7
이집트	19.9	15.4	10.1	10.8	17.9	23.3	24.3	27.6	27.0	22.1
리비아	28.5	92.6	25.8	31.8	295.1	313.8	381.2	539.2	904.8	857.4
알제리	0.9	1.8	1.9	5.2	7.0	6.0	6.7	9.4	1.7	1.9
모로코	81.8	290.1	239.1	151.7	39.3	40.8	43.6	30.8	49.9	48.7
튀니지	13.3	23.4	48.3	24.9	12.1	4.6	5.0	23.6	94.4	114.8
이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파키스탄	0.1	0.2	0.3	0.4	0.4	0.4	0.3	0.4	0.6	0.7

자료: UNHCR 난민통계자료(<https://www.unhcr.org/refugee-statistics/download/?url=7gk0Cp>)에 기초해 작성.

10) 2018년 이후 터키내 비호신청은 81개 주의 지방이주관리청(Provincial Directorate for Migration Management, PDMM)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어느 도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비호신청을 위해 이동하고자 하는 난민들에게 여행에 필요한 서류가 발급되지 않아 체포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적 장애는 미등록 비정규 이주자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AIDA, "Country Report: Turkey (2019 Update)," p. 15, in https://asylumineurope.org/wp-content/uploads/2020/04/report-download_aida_tr_2019update.pdf (2021/05/30 검색). 물론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호신청 비율은 현저히 낮으며, 비호신청을 하지 않은 이들의 2차 이동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집트의 경우는 출신국 별로 선호가 다르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도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집트의 경우 에티오피아 출신은 비호희망자가 많고, 수단 출신은 두 집단의 규모가 비슷하다. 그러나 시리아나 팔레스타인 난민의 경우는 비호희망자가 현저하게 적으며, 에리트레아와 남수단 출신은 점차 비호희망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타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표 3> 이집트내 UNHCR 관할하 출신국별 난민과 비호희망 난민 수 비교(단위: 명)

	2011년		2015년		2020년	
	UNHCR 관할	비호희망자	UNHCR 관할	비호희망자	UNHCR 관할	비호희망자
시리아	9	85	117,635	0	130,042	0
팔레스타인	70,029	20	70,021	5	70,020	0
수단	10,324	14,426	11,296	17,316	24,146	25,128
소말리아	6,328	840	4,491	3,191	4,424	2,329
이라크	6,037	1,401	4,347	2,844	4,588	2,243
남수단	.	.	1,686	2,461	17,674	2,135
에리트레아	1,036	881	1,405	2,431	12,608	6,379
에티오피아	609	827	1,085	5,846	5,135	11,046

자료: UNHCR 난민통계자료(<https://www.unhcr.org/refugee-statistics/download/?url=7gk0Cp>)에 기초해 작성.

이러한 수치들은 유럽으로 향하는 초국가적 이주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동하고자 하는 인구가 작지 않은 규모로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은 출신국별로 차이가 있으며, 2차 혹은 3차 이동은 유럽국가들과 인접 국가들의 난민정책 변화에 따라 그 방향이나 규모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¹¹⁾

11) 실제로 지중해 동해안부터 지중해 남단의 북아프리카지역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경우 2016년을 기점으로 구성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이탈리아와 말타에 도착한 난민은 약 15만 4천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주로 이들은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수단, 감비아, 그리고 시리아 출신이었다. 2016년 도착 난민은 약 18만 1천 명이며, 나이지리아, 에리트레아, 기니,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감비아 출신으로 그 구성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Wittenberg 2017, 2-3). 이러한 난민 구성은 2021년 1-3월이 기간동안 약 7,489명이 도착했으며, 방글라데시, 튀니지, 코트디부아르, 에

2. 이동경로 확대

시리아 난민 혹은 이들이 혼합된 난민들은 터키를 포함해 시리아 인접지역부터 북아프리카로 이동한 후 흑해부터 지중해 서부에 이르는 다양한 해상 경로 및 육로를 통해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다. 유럽국경을 관리하는 프론텍스(Frontex)는 쉥겐지역에 이르는 경로에서 발생하는 ‘불법 국경통과’(illegal border-crossing)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프론텍스의 자료는 유럽과 접경지역 국가들의 국경통제 노력과 이를 회피하려는 초국가적 이동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프론텍스의 자료에 따르면 터키 서안에서 그리스 도서로 이어지는 지중해 동부 해상 경로에서 ‘불법국경통과’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 지중해 동부 해상 경로는 2015년 87만 명 수준으로 급증한 이후 2016년 약 17만 명, 그리고 2019년 약 6만 6천 명 수준으로 급감했으나 여전히 중요한 이동경로이다. 이와 유사하게 터키와 발칸반도 서부를 연결하는 서발칸 해상 경로 역시 2015년 약 76만 명이 이용했으나,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가 2020년 다소 증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튀니지와 이탈리아 람페두사(Lampedusa)를 연결하는 지중해 중부 해상 경로는 2014년 3만 7천 명으로 급증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3천4천 명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지중해 동부와 중부 해상 경로상의 이동이 2017년 이후 감소하는 것은 2016년 3월 EU-터키 난민협정과 2017년 1월 이탈리아-리비아 간 이주문제에 관한 양해각서, 그리고 지중해와 에게해에서 행해지고 있는 ‘밀어내기’(push-back) 작전의 영향인 듯하다.¹³⁾

난민의 유럽으로의 해상 이동을 차단하려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난민들은 통

리트레아, 기니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전과는 다소 다른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UNHCR. “Fact Sheet: Italy, March 2021,” in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Fact%20Sheet%20March%202021.pdf> (2021/05/15 검색).

- 12) 다만 해상 경로는 상대적으로 불법적 국경통과를 추적하기가 용이한 반면, 육로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3) 프론텍스와 유관국 연안경비대 합동으로 진행되는 ‘밀어내기’ 작전에 대해서는 적법성과 인권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EU 의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밀어내기’ 작전과 관련해 난민들이 이탈리아 정부를 고소하거나 시민단체 구조선이 구조하기 전에 리비아 해안경비대가 구조해 리비아로 귀환한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어 해상 차단 작전과 구조활동을 둘러싼 정치적,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Med: Fight for Justice over Pushback Case amid Continuing Deaths, Rescues, and Pullbacks to Libya,” ECRE News, 19/02/2021, <https://www.ecre.org/med-fight-for-justice-over-pushback-case-amid-continuing-deaths-rescues-and-pullbacks-to-libya/> (2021/03/25 검색).

제가 약화된 이전 경로를 다시 이용하거나 새로운 경로를 찾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서양과 서아프리카 경로를 포함하는 지중해 서부 경로는 2019년 26,700명으로 전년대비 57%, 그리고 지중해 중부 경로는 14,000명으로 40%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0년 지중해 중부 경로는 34,100명으로 154% 증가했으며, 서부 경로는 35,800명으로 46% 증가했다. 이와 달리 2019년 83,300명이 이동해 전년대비 47% 증가한 지중해 동부 경로는 2020년 19,300명으로 74% 감소했다.¹⁴⁾ 또한 해상경로에서의 이동이 감소하면서 지중해 동부 및 동부 국경 육상 경로, 서아프리카 해안에서의 이동이 증가하고, 서발칸 해상 경로에서의 이동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표 4> 유럽행 경로별 비정규 이동 현황(2010-202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8	2019	2020
발서간	(해)	4,596	6,336	19,926	43,355	764,033	130,261	5,843	15,127	26,918
	(육)	0	0	0	0	0	0	1	0	0
서아프리카(해)		340	174	283	276	874	671	1,323	2,718	23,029
지중해 중부(해)		11,674	1,969	3,221	37,207	14,837	10,450	3,512	2,505	3,833
지중해 서부	(해)	5,103	3,558	2,609	4,689	5,740	8,641	54,820	23,557	17,132
	(육)	3,345	2,839	4,229	2,494	1,264	1,349	1,425	412	96
지중해 동부	(육)	55,558	32,854	12,968	6,777	12,207	7,672	22,546	17,370	9,849
	(해)	1,467	4,370	11,830	44,057	873,179	174,605	34,014	65,963	10,431
알바니아-그리스(육)		5,269	5,502	8,728	8,841	8,932	5,121	4,550	1,944	1,365
동부국경(육)		1,049	1,597	1,316	1,275	1,920	1,349	1,029	642	615
흑해(해)		0	1	148	433	0	1	0	2	0
기타	(육)	0	0	0	3	0	0	0	0	0
	(해)	1	0	4	9	7	1	0	3	2

* '해'는 해로, '육'은 육로를 의미함

자료: Frontex의 'Detection of Illegal Border Crossing Statistics,' <https://frontex.europa.eu/along-eu-borders/migratory-map/> (2021/04/05 검색)에 기초해 작성.

이러한 변화는 난민들이 유럽 및 인접지역 국가 간의 정책적 공조나 대응에

14) EU Commission, "Statistics on Migration to Europe: Overall Figures of Immigrants in European Society,"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promoting-our-european-way-life/statistics-migration-europe_en (2021/04/03 검색).

대해 일종의 회피와 선택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¹⁵⁾ 특히 이 과정에서는 지리적 특성은 물론, 법적, 정책적 ‘빈틈’을 이용하기도 한다.¹⁶⁾ 에게해 경로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흑해를 통과해 루마니아로 우회하는 경로가 보고되기도 한다. 이 경로는 사고가 많아 선호되는 경로는 아니지만 국제회랑의 특성상 명백한 증거 없이 통행 선박을 검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밀입국 알선자들에게는 유용한 경로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육로나 에게해를 통해 불가리아로 이동했다. 지난해 이스탄불 해협에서 보트가 나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는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불가리아와 그리스에 철조망과 장벽이 설치되고 있다. 해상작전도 매일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경로가 나타나고 있고, 이들 새로운 경로들은 이전 경로보다 더 위험하다. 이 과정에서 밀입국 알선자들의 수입은 늘어난다. 이들은 불가리아나 루마니아에 도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이들은 아마도 이스탄불 근처 공해상에서 출발하는 듯하다.¹⁷⁾

난민들이 모두 2차 이동을 통해 유럽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15-2016년과 같은 폭발적인 이동은 아니지만 여전히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 이동은 현재 진행형이며,¹⁸⁾ 시리아 난민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국적의 난민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2차 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15) 대체로 밀입국의 경우 해상 이동에 비해 육로 이동은 적발이 어렵다는 면에서 수치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이동경로의 존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6) 서발칸 경로의 경우 불법 국경통과의 2/3가 세르비아와 헝가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 크로아티아와 달리 곧바로 다른 유럽 쉼겐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며, 세르비아-헝가리 국경지대가 지리적으로 통과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외에 발칸경로에 있는 국가들이 EU의 난민 규정은 물론 국제협약을 수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난민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Weber 2016, 3).

17) “Marmara Became the New Migration Route of Refugees,” AGOS, November 3 2014, <http://www.agos.com.tr/tr/yazi/8374/marmara-multecilerin-yeni-goc-yolu-oldu>, in Çarmikli & Kader 2016, 23.

18) 2015년 1,032,408명에 달했던 지중해 난민은 2016년 373,652명, 2018년 141,472명, 그리고 2020년 95,031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21년 1/4분기 지중해 난민은 2,326명으로 난민 이동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사망자 수도 2020년 1,401명이었으나 2021년 1사분기에 이미 762명에 달하고 있다. UNHCR Operation Data Portal, “Mediterranean Situation,” <https://data2.unhcr.org/en/situations/mediterranean> (2021/05/25 검색).

IV. 네트워크 사회의 난민

1. 난민 네트워크의 변화

아프간 난민은 대규모로 발생하였지만 상대적으로 긴 기간동안 발생되고 있다. 이들이 유럽으로 이동하는 시작한 초기에 유럽내 국경은 개방되어 있지 않았으며, 난민 이동은 공개적이기보다는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다. 이와 달리 시리아 난민의 이동은 거의 모든 이동경로에서 스마트폰이 사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이동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하는 필수품이 되고 있다.¹⁹⁾

네트워크 이론에서 볼 때 이동통신과 소셜 미디어의 발전은 다음의 몇 가지 특징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 첫째, 특정 네트워크내 '무작위적인 연결'의 폭발적인 증가를 낳아 네트워크내 평균거리, 즉 한 노드(행위자)와 다른 노드가 연결되는 단계(거리)를 대폭 감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약한 연결의 힘'(Strength of Weak Ties: SWT) 이론은 한 네트워크내에 강하게 연결되지 않은 행위자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할 경우, 이 행위자는 네트워크내 새로운 정보의 출처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Borgatti & Halgin 2011, 1170-1171).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 발전은 이러한 연결고리가 양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네트워크내 연결은 행위자 간의 유사성을 높이며, 이러한 유사성은 선택의 유사성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으며(Borgatti & Foster 2003), 소셜 미디어로 연결된 행위자들은 이러한 유사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이러한 연결에서 얻어지는 네트워크상의 위치는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접근으로 이어지면서 목적지향 행동의 성과에도 영향을 주며(Borgatti & Halgin 2011, 1175-1176), 이는 난민의 이동과 목적지 도착에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소셜 네트워크 상의 연결은 연결의 단계를 대폭 감소시켜주고 있다. 난민이동과 관련이 있는 행위자들-출발 전이거나 이동중인, 혹은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비호희망자, 목적지에 도착해 비호신청을 하거나 이미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 목적지/경유지 시민들 혹은 NGO 관계자, 인신매매자/밀입국

19) 이러한 상황은 시리아 난민이 이동하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이동통신 기반이 이미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어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2016년 현재 중동과 북아프리카지역 인구의 98%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81%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구글 플러스 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Gillespie et al. 2018, 4).

알선자 등—은 주로 사용언어별로 형성된 커뮤니티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연결망은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그리고 기타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있으며, 정보 교환 네트워크의 평균거리를 대폭 감축시키고 있다.

이러한 연결은 실질적인 이동과정에서 소셜 미디어내 행위자와 소셜 미디어 밖에 존재하는 행위자가 난민을 중심으로 연결된다. 대부분의 난민들은 유럽에 도착하기 위해 밀입국 알선자와 스마트폰의 도움을 받게 된다. 터키를 출발해 독일에 도착하는 과정을 기록한 연구는 난민이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에 도착한 이후 기차, 버스, 택시 등 거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국경통과나 대중교통의 연결이 어려운 지역은 걸어서 도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Gillespie et al. 2018, 8). 이러한 과정은 여러 명의 밀입국 알선자를 거치게 되며,²⁰⁾ 이 과정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추천이나 관련 정보 습득과 함께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친인척이나 지인, 경로지의 택시 기사, 간이식당 주인, 휴대전화 충전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을 통해 정보를 얻게 된다. 경로지 행위자들에게 난민과의 '거래'는 일상적이다. 국경을 넘거나 국경 근처로 안내하는 택시 기사는 승객을 목적지로 이동시키는 본연의 일을 한 것이며, 이들을 통해 이동관련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²¹⁾

난민 관련 행위자의 확대와 증가, 그리고 이들의 연결은 목적지 도착이라는 난민들의 목적지향 행동의 성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단체로 이동하는 과정은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다른 공동체와 연결된 행위자가 섞여 있으며, 이들의 정보공유는 이동의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고무보트에 탔을 때 우리는 핸드폰을 각자 미리 구입한 작은 플라스틱 백에 넣어두었다. 그만이 유일하게 해안경비대와 연락을 유지하고, 우리의 위치를 네

20) 밀입국의 특성상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지중해를 경유해 유럽에 도착하는 모든 '이주민'의 약 80%는 한 곳 또는 그 이상의 경로에서 밀입국 알선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류가 없는 도착자들의 입국이 거부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밀입국 알선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주민 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다(Çarmikli & Kader 2016, 12).

21) 난민 이동과정에서 현지 주민과 난민의 연결은 보호나 지원 과정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난민이 집중적으로 이동하던 2015년의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독일이 더블린 조약의 잠정적 중지를 선언하기 전까지 헝가리에 도착한 난민들은 국경을 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이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지원과 함께 오스트리아 국경까지 차를 태워주겠다는 안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Kallius et al. 2016, 32).

덜란드에 있는 형제에게 알리기 위해 핸드폰을 플라스틱 백에 넣지 않고 있었다. 그는 수 분마다 우리의 위치를 형제에게 알렸다. 그의 형제는 자신이 이미 통과했었던 경로였기 때문에 원거리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었다 (Gillespie et al. 2018, 7).

이러한 연결고리는 이 사례에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지중해 해상 경로의 경우 보트를 이용하는 난민은 출발후 자신의 위치를 도착지나 경유지 NGO에 알리고, 연락을 받은 NGO는 해안경비대에 난민의 위치를 알려 구조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해왔다. 이는 구조라는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으로 여겨졌다. 무엇보다 해상구조는 해안경비대의 의무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확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의 위치 정보가 있어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Robinson 2016). 이 역시 소규모의 집단이 정부기관과 난민을 연결하는 ‘약한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난민 이동과 관련된 행위자의 증가는 난민 외에 밀입국 알선조직과 같은 초국가적 이동관련 행위자들의 증가를 포함하고 있다. 난민이 이용하는 지중해 경로는 밀입국 알선자에게 1인당 약 1,000-2,000 유로의 비용을 지불하고 건너는 비싸고 목숨을 건 위험한 과정이다.²²⁾ 소셜 미디어 이용의 확대로 밀입국 알선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간의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밀입국 알선에는 개인이나 지역사업가, 그리고 초국가적 조직이 개입하고 있으며, 이들 조직은 매우 유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의 서비스는 “교통수단, 임시 거처, 가짜 증명서류, 국경관리에 대한 뇌물, 그리고 특정한 현지 사정이나 특정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부수적인 활동”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 국제범죄조직의 관심을 끌게 되고 그 결과 밀입국에 개입하는 집단의 풀이 다양화되거나 확대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밀입국은 개인, 지역 수준의 사업가, 그리고 보다 민감한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개입되는 비즈니스가 된다. 이들이 어느 정도로 개입하는가는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들은 개인적인 수준의 이동을 위한 가짜 문서를 제공하기도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스스로 혹은 다른 국가의 파트너를 통해 직

22) 물론 이러한 비용은 보트의 상태나 동승자 수, 이동 경로, 알선업자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접 이주자들의 이동수단을 마련하기도 한다. 한 연구는 개인적 이동보다 밀입국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할수록 해당 섹터의 인기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밀입국 작전은 대체로 밀입국 조직이 다른 지역의 사회적 구조(social fabrics)와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상대적 지리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는 (1) 네트워크가 적응력 있고 유연한 구조를 가지며, (2) 다수의 네트워크는 '기업형 모델'에 따라 초국가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델은 밀입국 조직이 범죄 기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쉽게 확장되거나 감축될 수 있는 유연하고 적응력이 높은 조직임을 보여주고 있다(Çarmikli & Kader 2016, 11).

2017년 유럽망명지원사무소(European Asylum Support Office: EASO)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밀입국 알선조직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밀입국 광고를 언어권역별로 흑해부터 지중해 서부에 이르는 경로에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²³⁾ 이들은 이동경로와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이동수단의 크기와 상태에 따라 비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밀입국 알선자들은 EU 회원국들의 여권이나 쉥겐 비자를 판매하기도 하며, 목적지 도착후 경비를 지불하는 후불제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광고에 대해 경비가 비싸다는 댓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광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로를 이용한 난민이 광고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라는 경고를 남기기도 한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밀입국 알선업자는 가격책정 배경을 설명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밀입국 알선자의 가격 제시에 대해 다른 밀입국 알선자가 보다 싼 가격을 제시하는 상황도 발견된다. 이러한 관계는 여전히 이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나 수단이 밀입국 알선자들의 손에 있기는 하지만 난민과 밀입국 알선자 간의 관계가 일방적 관계를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²⁴⁾

23) 2017년 1월부터 시작된 EASO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유럽자료 보호감독관(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은 이러한 활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일시적인 프로젝트 중지를 명하기도 하였다. Alexander Fanta, "EDPS: Asylum Office Has No Legal Basis for Monitoring Refugees on Social Media," *Eucdserv*, 9 December 2019, in <https://iapp.org/news/a/edps-asylum-office-has-no-legal-basis-for-monitoring-refugees-on-social-media/> (2021/6/2 검색).

24) 다만 이러한 다양한 광고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기초한 한 연구에 따르면 밀입국 알선자는 경로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밀입국 알선자를 찾는 방법은 경로지의 공원, 버스/기차역, 항구 등 공공장소(47%), 시리아인 친구나 가족 혹은 다른 난민/이주자의 추천(33%) 등 추천의 다수는 인종이나 혈연에 기

2. 난민 네트워크의 효과

소셜 미디어에 기반한 난민 네트워크는 이동 결정과 경로지 선정, 그리고 목적지 도착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난민 접수 및 보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난민들은 출발지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네트워크와도 연결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연결은 국경통제의 회피나 접수국/경로국의 난민이동에 대한 대응에 대한 회피, 그리고 나아가 거짓 정보 확산으로 인신매매의 덫에 빠지는 등 보호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행위자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됨으로써 법적·제도적 대응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첫째, 비호신청을 희망하는 난민들과 도착지 NGO 혹은 난민지원에 관심 있는 시민으로 구성되는 소셜 미디어에 기반한 난민 네트워크는 초국가적 이동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동 경로나 도착지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행위자와의 연결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목적지 도착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다.²⁵⁾ 연구자가 연구과정에서 만난 난민의 일부는 이미 출발 전에 도착지를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페이스북 친구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다양한 국적으로 이루어진 이 소집단은 도착국과 경로상 국가들의 난민관련 정책과 상황,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밀입국 알선자 등 이동과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동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지원받기도 하였다. 2019년 6월과 7월 프랑크푸르트(Frankfurt)에서 면담을 진행했던 이란 출신의 20대 난민은 개인적 사유로 비호신청을 위해 이란을 출발해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는데 1주일 정도 소요되었다. 그는 가족의 반대가 심해 이란을 떠나려던 첫 시도를 포기하고 페이스북 친구들과 난민관련 정보만 교환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점차 난민 이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더 기다릴 경우 독일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해 2018년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란을 출발해 터키와 그리스를 경유해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고, 비호 신청을 완료했다. 난민들의 경우 고향의 재산 정리, 가족의 지원, 이동과정에서의 근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 경비를 마련하지만 이 경우는 페이스북 친구가 경비를 지원해준 사례였다. 이런 사

초한 관계에서 얻고 있으며, 응답자의 12%만이 알선자가 먼저 접근했다고 응답하고 있다(Mandić 2017, 31-32). 물론 이러한 관계가 수평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네트워크에는 자생적으로 중심(허브)이 발생하게 되며, 네트워크가 수평적으로 보이더라도 세밀히 살펴보면 위계성이 나타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김석현 2012, 102-103).

25) 특히 휴대전화는 적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경관리정책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Mandić 2017, 32).

례는 소셜 미디어에 기반한 난민 네트워크가 목적지 도착이라는 목표 달성에 매우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²⁶⁾

둘째, NGO나 도착지 정부기관은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난민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고, 이를 난민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독일연방이주난민사무소(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BAMF)는 도착시부터 비호신청에 이르는 과정과 이들의 권리를 독일어는 물론,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터키어, 아랍어 등 여러 언어로 안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²⁷⁾ 소책자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⁸⁾ 다만 정부기관의 정보는 목적지 도착을 우선하는 이동전 혹은 이동경로상에 있는 난민들이 원하는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교육 수준이 낮은 난민들에게는 이해하기에 복잡한 정보일 수 있다.

셋째, 난민 네트워크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행위자로 구성되는 모든 네트워크가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소셜 미디어에 기반한 난민 네트워크는 소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난민 네트워크에서는 거짓 정보나 확인하기 어려운 루머가 넘쳐나기도 한다. 이러한 연결 속에서 올바른 정보에 기초하던 거짓 정보에 기초하던 선택의 결과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 공간은 꿈과 희망의 공간이기도 하고, '착취의 덫'(exploitive trap)이 되기도 한다(Gillespie et al. 2018, 2).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루머 가운데에는 '(유럽에) 도착하기 전에 고무보트에 구멍을 내야 한다,' '재배치(relocation)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베네수엘라로 보내질 것이다,' '유럽에서는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다'와 같은 루머가 이동 초기에는 가장 흔하게 발견되었다.²⁹⁾ 이는 2021년 '유럽내 코로나19 희생자가 증가하면

26) 연구자가 목격한 가장 빠른 이동은 이라크에서 체코까지 항공편을 이용해 이동한 경우였다. 이 경우 가족이 친척이 체코에 체류하고 있어 필요한 서류를 마련해주었으며, 밀입국 알선자가 제공하는 항공편을 이용해 출발 당일 목적지에 도착한 사례였다. 모국을 떠나 장기간 인접국에 체류하다가 유럽으로 이동하는 경우 언제부터든 이동 시작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의 유럽행 이동기간은 파키스탄-터키 등의 2차, 3차 이동과정을 거치면서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27) <https://www.bamf.de/EN/Themen/AsylFluechtlingsschutz/asylfluechtlingsschutz-node.html> (2021/3/21 검색). 이러한 안내는 도착시에도 주어지며, 저자가 인터뷰한 BAMF 담당관은 BAMF의 이러한 조치가 난민들에게 매우 유용하고 만족도가 높다고 언급하였다.

28) https://www.bamf.de/SharedDocs/Anlagen/EN/AsylFluechtlingsschutz/Asylverfahren/das-deutsche-asylverfahren.pdf?__blob=publicationFile&v=15 (2021/3/21 검색).

29) "Rumours and Lies: 'The Refugee Crisis is an Information Crisis,'" *The Guardian*,

서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루머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루머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처한 난민들이 보다 쉽게 이동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Carver-Affeldt & Seaman 2021, 16).

소셜 미디어에 기초한 난민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효과는 확증편향성이다. 이러한 현상은 난민의 경우 도착지와 안전한 이동이라는 목표가 정해지고 이러한 목표를 지지하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모으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나타난다.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되는 많은 자료는 주로 성공담이며 실패 경험담을 찾기는 어렵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NGO나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현실과 위협성에 대한 경고와 대비되지만, 이동과 동시에 기존의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단절되는 상황, 그리고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도 별다른 선택이 없는 상황은 확증편향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³⁰⁾

넷째, 난민들이 이동과정에서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도착지와 경로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하는 과정은 마치 네비게이션처럼 소셜 미디어를 공유하는 난민들을 동일 경로에 모이게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시냇물이 모여 강물을 이루듯이 특정한 거점으로 모이게 하고, 그 거점에서 다음 경로지의 여정을 선택하게 한다. 이러한 선택은 일종의 경로의존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난민의 선택을 제약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거짓 정보 등으로 정보와 경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집단내에 남아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혼합이주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비호신청 심사과정에 부담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소셜 미디어에 기초한 난민 네트워크는 난민관련 행위자들의 구분을 희미하게 하고 있다. 난민은 정보의 수요자이면서 동시에 이동하면서 현장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공급자이기도 하다. 난민 이동과 무관했던 경로지 지역 주민들은 일상과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서 국경이동을 지원하거나 밀입국 알선자에게 지불할 후불제 경비를 맡아두었다가 난민이 목적지 도착후 밀입국 알선자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은행' 역할을 하기도 한다.³¹⁾ 소셜 미디어는 출발

18/08/2016,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professionals-network/2016/aug/18/rumours-and-lies-the-refugee-crisis-is-an-information-crisis> (2021/01/14 검색).

30) Ibid.

31) 밀입국 알선자들은 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후불제와 후불제를 가능하게 하는 송금 절차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러한 후불제는 비용을 특정한 환전소나 음식점에 맡기는 방식, 특정한 장소에 숨겨두는 방식 등 다양하며 도착후 돈을 맡긴 장소를 알려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지와 도착지의 다양한 행위자를 연결하고 이러한 연결망 속에서 해상난민들이 구조되기도 한다. 이 연결망에 밀입국 알선조직이 개입할 경우 이러한 연결망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동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된다.³²⁾

끝으로 소셜 미디어에 기반한 난민 네트워크는 인신매매나 밀입국 알선조직의 적응력 또한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사이버 세상에서의 연결은 정보의 신속한 교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토적, 법적 경계를 오가며 활동하며 범망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밀입국 조직은 합법적인 비즈니스와 연결을 시도하고, 이러한 연결을 통해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소셜 미디어에 기반한 네트워크 상의 연결은 특정 행위자보다는 그 행위자가 수행하는 역할이 중요하며 이러한 역할은 중첩적인 네트워크 상의 연결 속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대체·복원될 수 있다.

밀입국 알선조직의 높은 적응력은 이들에 대한 난민들의 인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에리트레아인들이 주로 접속하는 사이트에서는 리비아내 인권상황에 대한 글이 게시되기도 한다. “우리는 양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우리는 시장에서 400달러에 팔리고 있다. 조국을 떠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존엄성을 잃고 길에서 팔리고 있다”, “리비아로 가려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 리비아의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와 같은 경고가 발견된다(EASO 2017, 20).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와 인권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난민들이 밀입국 알선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5-2016년 중 5개국에서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5점 척도 설문에 따르면 73.7%의 응답자가 이들 밀입국 알선자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6.4%만이 ‘불만족’ 혹은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하였다(Mandić 2017, 31). 소셜 미디어상 정보의 생산과 이동을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 점과 정보 소비자의 인식이 후호적이라는 점은 인신매매나 밀입국 알선조직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으며, 밀입국 통제 관련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32) 이러한 문제는 이미 범죄조직이 NGO의 보트를 이용해 난민을 유럽으로 보내고 있다는 프론택스의 보고에 대한 보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Robinson 2016). 헝가리는 개인이나 단체가 비호를 희망하는 ‘불법 이주자’를 돕는 행위를 금지하는 ‘소로스저지 법안’(Stop Soros’ laws)을 채택하기도 하였다(김성진 2020b, 171). 유사한 맥락에서 밀입국과 인신매매조직의 구분도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Çarmikli & Kader 2016).

V. 결 론

시리아 난민 위기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인접국은 물론 유럽으로까지 대규모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난민 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EU차원에서는 더블린규약과의 상충, 난민 재배치정책에 대한 반발 등 난민에 대한 공동대응에 한계를 노정하면서 난민정책 조율 위기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위기는 휴대전화와 소셜 미디어에 기반한 난민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라 난민 이동과정에서 관련 행위자가 폭발적 증가하고, 행위자들 간의 상호관계 변화가 초래되며,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한 이동경로의 변경과 이에 따른 대응이 어려워지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에서는 거짓 정보의 확산과 함정, 그리고 불법적 조직의 개입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³³⁾ 이와 함께 난민 네트워크내 유사한 정보의 공유와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출발지가 다른 난민과 이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추천되는 경로를 통해 이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혼합이주' 현상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난민 네트워크는 출발과 함께 가족을 포함해 기존의 사회적 관계 및 전통 미디어와 단절되었던 과거와 달리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기존의 연결망을 유지한 채, 새로운 네트워크와 정보에 손쉽게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난민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결혼식 등 가족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모바일 홈(mobile home)'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Gillespie et al. 2018, 6). 이러한 네트워크의 활용은 난민들에게 사회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난민 이동과 관련된 행위자 확대와 상호관계의 변화, 정보연결을 통한 초국가적 이주 네트워크의 효율성 증가 등의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난민 이동과 연결되는 정부/비정부, 조직과 개인을 모두의 상호작용 기회를 확대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기회는 이동과정에서의 안전, 도착지에서의 안착에 필요한 정보, 거짓정보에 대한 대응, 그리고 나아가 언어, 기술, 전문지식의 습득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3) 난민의 이동경로와 밀입국 알선정보 등을 얻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들의 휴대 전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경찰들은 난민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개인 페이스북 로그인 암호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는 새로운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Gillespie et al. 2018, 6).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 발전으로 촉발되고 있는 이러한 변화는 시리아 난민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진행될 초국가적 이동에 보다 진화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난민 보호 노력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난민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는 거짓 정보와 현실과 다른 기대의 양산에 대응하고, 이동과정의 위협에 대한 경계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초국가적 이동과 관련된 행위자 증가와 이들의 연결망 확대는 난민 보호와 밀입국 알선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어 양자 간의 경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구분을 포함해,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인신매매 및 밀입국 알선조직에 대한 통제 노력도 단순히 특정 행위자를 차단하는 이전 방식을 답습할 경우 단기적인 성과를 달성하더라도 이들이 수행한 기능은 재연결(rewiring)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복구될 수 있음을 고려해 재편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난민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 노력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경로/유입국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이동경로상에 없는 많은 국가들을 포함한 다자간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고길근, 김지윤. 2013. “행정학과 타학문분야의 네트워크 이론 연구 및 활용 경향에 대한 연구.” 『정부학연구』 19(2), 37-72.
- _____. 2019. “Duncan J. Watts의 복잡한 연결망 이론.” 오석홍, 손태원, 이창길 편. 『조직학의 주요이론』. 서울: 법문사, 599-607.
- 고상두, 하명신. 2011. “독일 망명정책 변화의 국내정치적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51(1), 241-262.
- 국민호. 2019. “유럽의 반 난민정서 강화와 영국 비호신청자의 참상.” 『디아스포라연구』 12(1), 95-134.
- 국제이주기구. “이주용어사전 (2판),” 『국제이주법』 26, https://publications.iom.int/system/files/pdf/glossarykoreanweb_rev221111.pdf (2020/12/08 검색).
- 김대순. 2018. “유럽 난민 사태에 관한 헝가리 오르반 행정부의 반대 입장 동기 분석 연구.” 『EU연구』 48, 251-280.
- 김석현. 2012. “네트워크 이론지형과 실천적 함의.” 『동향과 전망』 85, 89-130.
- 김성진. 2016. “영국의 난민정책: 시리아난민 사례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9(2), 107-139.
- _____. 2020a. “‘혼합이동’과 유럽 난민정책: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사례.” 『정치정보연구』 23(2), 89-125.
- _____. 2020b. “유럽난민 위기: 문제정의 오류와 결과.” 『동서연구』 32(2), 155-180.
- 김연희, 이교일. 2017. “초국적 삶의 주체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전환경험과 미디어 행위자네트워크의 역할: 중국출신여성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6(1), 107-153.
- 김종범. 2018. “2017년 유럽 주요 국가들의 선거결과를 통해 본 극우주의와 포퓰리즘: 난민정책과 유럽통합의 문화정치적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 『지중해지역연구』 20(2), 1-21.
- 김현주. 2015. “해상 불법이민자의 국제법적 보호와 규제: 2015 EU 난민 사태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60(4), 103-124.
- 김혜선. 2019.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연계적 사회자본.” 『가족과 문화』 31(3), 139-178.

- 박 단. 2016. “시리아 난민, 파리 테러 그리고 프랑스: 파리 테러의 내적 배경을 중심으로.” 『통합유럽연구』 7(1), 1-29.
- 박병철, 석인선. 2016. “난민문제와 EU의 위기: EU의 위기관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21세기정치학회보』 26(3), 149-177.
- 박선희. 2017. “유럽국경관리청(FRONTEX)과 난민의 인권문제: 해로 유입 난민을 중심으로.” 『통합유럽연구』 8(1), 89-122.
- 송영훈. 2018. “수의 정치: 난민인정률의 국제비교.” 『문화와 정치』 5(4), 25-31.
- 신소희. 2020. “대안적 난민 수용에 관한 논의: 2014년 이후 독일의 난민 노동시장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이민학』 7(2), 47-77.
- 신지원. 2019. “‘가짜’ 난민의 담론적 구성: 영국 난민신청자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담론201』 22(2), 69-107.
- 심성은. 2019. “EU 난민정책의 회원국 국내법에 대한 영향: 프랑스 사례연구.” 『통합유럽연구』 10(2), 191-225.
- 안병익. 2016. “유럽연합 난민정책의 대내외적 변화: 2015년 난민위기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68, 4-24.
- 윤성원. 2016. “시리아 난민과 영국: 시리아 난민사태에 대한 영국정부의 입장과 난민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24(2), 1-22.
- 이기범. 2015. “해상난민 보호와 관련하여 해양을 규율하는 국제협약들의 역할 및 한계.” 『해양정책연구』 30(2), 133-162.
- 이신화. 2017. “인구, 이주, 난민안보의 ‘복합지정학’: 지구촌 신흥안보의 위협과 한반도에의 함의.” 『아세아연구』 60(1), 36-50.
- 이용일. 2018. “독일의 극우정치와 난민 : 독일 대안당과 ‘하이마트 정치.’” 『HOMO MIGRANS』 19, 94-123.
- 이은채. 2004. “이주민의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결혼이민자의 네트워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33, 103-130.
- 이형석. 2019. “EU 난민위기와 EU 공통법제 변화에 관한 연구: Schengen 협약과 유럽공통방명제도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30, 237-269.
- 이희영. 2013. “(탈)분단과 국제이주의 행위자 네트워크: ‘여행하는’ 탈북 난민들의 삶과 인권에 대한 사례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7(1), 355-393.
- 장세용. 2012. “공간과 이동성, 이동의 연결망: 행위자-연결망 이론과 연관시켜.” 『역사와 경계』 84, 271-303.
- 최병두. 2017. “관계이론에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으로: 초국적 이주 분석을 위

- 한 대안적 연구방법론.” 『현대사회와 다문화』 7(1), 1-47.
- _____. 2017. “초국가적 결혼이주 가정의 음식: 네트워크와 경계 넘기.” 『한국 지역지리학회지』 23(1), 1-22.
- 최진우. 2016. “난민위기와 유럽통합.” 『문화와 정치』 3(1), 109-137.
- 황기식, 김현정. 2018. “난민안보와 EU 공동체 위기.” 『한국동북아논총』 23(3), 111-136.

영문 자료

- Borgatti, Stephen P. and Daniel S. Halgin. 2011. “On Network Theory.” *Organization Science* 22(5), 1168-1181.
- _____ and Pacey C. Foster. 2003. “The Network Paradigm in Organizational Research: A Review and Typology.” *Journal of Management* 29(6), 991-1013.
- Çarmikli, Elif Özmenek and Merve Umay Kader. 2016. *Migrant Summging in Turkey: The ‘Other’ Side of the Refugee Crisis*. Research Report of the International Strategic Research Organization (USA), <https://www.jstor.org/stable/resrep02580.5> (2021/04/18 검색).
- Conte, Alessandra and Silvia Migali. 2019. “The Role of Conflict and Organized Violence in International Forced Migration.” *Demographic Research* 41, 393-424.
- Côté, Rochelle R., Jessica Eva Jensen, Louise Marie Roth and Sandra M. Way. 2015. “The Effects of Gendered Social Capital on U.S. Migration: A Comparison of Four Latin American Countries.” *Demography* 52(3), 989-1015.
- d’Haenens, Leen, Willem Joris and François Heinderyckx, eds. 2019. *Images of Immigrants and Refugees in Western Europe: Media Representations, Public Opinion and Refugees’ Experiences*.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 Ette, Andreas. 2017. *Migration and Refugee Policies in Germany*. Berlin: Barbara Budrich.
- EU Commission. 2021. “Statistics on Migration to Europe: Overall Figures of Immigrants in European Society.”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promoting-our-european-way-life/sta>

- tistics-migration-europe_en#illegalbordercrossings (2021/04/03 검색).
- Fanta, Alexander. 2019. "EDPS: Asylum Office Has No Legal Basis for Monitoring Refugees on Social Media." *Euroserver*, 9 December, <https://iapp.org/news/a/edps-asylum-office-has-no-legal-basis-for-monitoring-refugees-on-social-media/> (2021/06/02 검색)
- European Asylum Support Office (EASO). 2017. "Social Media Monitoring Report." Period 23-29 November.
- Garip, Filiz. 2008. "Social Capital and Migration: How Do Similar Resources Lead to Divergent Outcomes?" *Demography* 45(3), 591-617.
- Garver-Affeldt, Jessamy and Mackenzie Seaman. 2021. "A Gateway Re-opens: the Growing Popularity of the Atlantic Route, as Told by Those Who Risk It." Mixed Migration Centre(MMC) Research Report, <https://mixedmigration.org/resource/a-gateway-re-opens/> (2021/03/21 검색).
- Granovetter, Mark S. 1978.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Kallius, Annastiina, Daniel Monterescu and Prem Kumar Rajaram. 2016. "Immobilizing Mobility: Border Ethnography, Illegal Democracy, and the Politics of the 'Refugee Crisis' in Hungary." *American Ethnologist* 43(1), 25-37.
- Liguori, Anna. 2017. "The 2017 Italy-Libya Memorandum and its Consequences." in *Migration in the Mediterranean Area and the Challenges for "Hosting" European Society*, edited by Giuseppe Cataldi, Anna Liguori and Marianna Pace, 215-226. Napoli: Editoriale Scientifica.
- Mandić, Danilo. 2017. "Trafficking and Syrian Refugee Smuggling: Evidence from the Balkan Route." *Social Inclusion* 5(2), 28-38.
- Manni Crone, Maja Felicia and Teemu Taammikko. 2017. "Europe's Refugee Crisis and the Threat of Terrorism: An Extraordinary Threat?" Danis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https://pure.diis.dk/ws/files/910914/Report_05_Europes_Refugee_Crisis_Web.pdf (2021/02/20 검색).
- Niemann, Arne and Natascha Zaun. 2018. "EU Refugee Policies and Politics

- in Times of Crisis: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56(1), 3-22.
- Ostrand, Nicole. 2015. "The Syrian Refugee Crisis: A Comparison of Responses by Germany, Swede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n Migration and Human Security* 3(3), 255-279.
- Palloni, Alberto, Palloni, Douglas S. Massey, Miguel Ceballos, Kristin Espinosa and Michael Spittel. 2001. "Social Capital and International Migration: A Test Using Information on Family Network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5), 1262-1298.
- Robinson, Duncan. 2016. "EU border force accuses charities of collusion with migrant smugglers." *Financial Times*, <https://archive.fo/sy9Xy#selection-1689.0-1689.69> (2021/03/21 검색).
- Schmid, Alex P. 2016. "Links between Terrorism and Migration: An Exploration." International Centre for Counter-Terrorism, May, <https://icct.nl/app/uploads/2016/05/Alex-P.-Schmid-Links-between-Terrorism-and-Migration-1.pdf> (2021/02/02 검색).
- Weber, Bodo. 2016. "Time for a Plan B: The European Refugee Crisis, the Balkan Route and the EU-Turkey Deal." DPC (Democratization Policy Council) Policy Paper, September, http://www.democratizationpolicy.org/pdf/DPC_Policy_Paper_Europ_refugee_crisis_EU_Turkey_deal.pdf (2021/03/21 검색).
- Wittenberg, Liska. 2017. "Managing Mixed Migration: The Central Mediterranean Route to Europe."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April, https://www.ipinst.org/wp-content/uploads/2017/04/1704_Managing-Mixed-Migration.pdf (2021/02/02 검색).

Abstract

Syrian Refugees' Mobilities in a Network Society

Seongjin Kim ■ 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nfluence of the development of refugee networks that are based on social media linkages on the refugee mobility and refugee crisis in Europe, with the frame of Actor Network Theory (ANT). The ANT suggests the refugees' access to mobile phone and social media changes the feature of interactions of various actors involved in the migration of refugees in departing/receiving and transit countries.

Social media networks enable refugees to bypass border controls and to employ various methodologies of crossing borders, expanding the grey areas of international/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Network theory suggests adding a link between any two nodes in existing network will drastically shorten the average distance of the nodes within the network. Links based on mobile phone and social media among refugees and refugee-related actors such as government, NGOs and particularly those in destination who have already completed their journeys radically reduced the distance of actors. Changing network power of refugees altered unilateral relations between refugees and smugglers. However, refugee networks also increase the risk with dis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a common problem found in a social media network where confirmation bias is cause difficulties in responding to such false information.

Changing interactions between refugee and various actors caused by mobile technology demands new approaches on the basis of expanded global cooperation to support and protect refugees in 'new' surroundings.

Key Words: Syrian refugee, Mediterranean refugee, Network theory, Actor Network Theory (ANT), European refugee crisis, refugee policy

□ 논문접수일: 2021년 5월 2일, 심사완료일: 2021년 5월 26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8일